

영재교육의 질적 연구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인식 변화

채동현 · 이항로[†] · 최영완[‡]

(전주교육대학교) · (대전둔산여자고등학교)[†] · (이리동산초등학교)[‡]

Perception Changes of Graduate Students on Qualitative Research in Gifted Education

Chae, Donghyun · Lee, Hangro[†] · Choi, Youngowan[‡]

(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Daejon Dunsan Girl's High School)[†] ·
(Iri Dongan Elementary Schoo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the change in graduate students' perceptions before and after they take a class on qualitative research. The class on qualitative research was held by the researcher in the winter semester of 2009. The subjects are nine graduate students (two male and eight female) and all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 open-ended questionnaire with 5 items was used. The responses were interpreted, analyzed and categorized into several main conceptions.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some students perceived qualitative research as the counterpart for quantitative research, some perceived that qualitative research supplements quantitative research, while the rest of them had no concept of either before they took the class. Second, they all agreed that qualitative research is necessary in gifted education after they took the class.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what is happening in classrooms, in terms of gifted education, a well organized curriculum for gifted education should be developed and conducted in graduate schools.

Key words : qualitative research, quantitative research, gifted education, elementary school teacher

I. 서 론

논리적 실증주의 또는 양적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은 가설의 일반화 가능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실험적 방법과 양적 측정을 이용하고, 변인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을 강조한다. 즉, 양적 연구에서는 인간 행동의 원인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며 이에 대한 정보는 요약되어 수치화 되고, 이렇게 수치화된 데이터는 준거에 따라 분석되며, 결론은 통계적 용어로 표현된다(Golafshani, 2003).

지금까지의 이러한 양적 연구 방법은 교육 현장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의 증진에 실패하였고, 교육 현장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

다. 김찬중(1999)은 학생들이 과학을 배우는 과정에서 학생-학생, 학생-교사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과학적 의미를 생성하고 공유하게 되며, 기존에 알고 있었던 지식, 생각, 가치관, 태도 등이 상황과 시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존재이며, 이러한 학생들이 자체가 연구의 주 대상이기 때문에 과학교육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양적 연구는 제한적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교육계에서는 연구 방법으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접근법이 있는데, 바로 질적 연구이다. 질적 연구의 바탕은 구성주의, 현상학, 해석학, 해석주의 등의 철학이며, 질적 연구의 목적은 인간 행동과 사회 현상을 이해하여 인간의 삶과 사회의 질을 향상

본 연구는 2010년 전주교육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습니다.

2010.12.8(접수), 2010.12.31(1심통과), 2011.1.8(최종통과)

E-mail: donghyun@jnue.ac.kr(채동현)

시킴에 있다.

질적 연구는 연구자가 조작이나 통제를 할 수 없는 실제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을 그 상황과 관련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자연스런 접근 방식을 이용한다. 질적 연구의 접근 방법은 현상에 대한 관점에 중점을 두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즉, 단 하나의 실체는 없으며, 인식에 바탕을 둔 실체는 사람에 따라, 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가정하며, 우리가 안다는 것은 상황이나 맥락을 통해야만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Creswell, 1998; Peine, 2003).

발견한 사실에 대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예언하며 일반화하려는 양적 연구와는 달리 질적 연구는 어떠한 현상을 있는 그대로 상황과 연계하여 그 의미를 있는 그대로 잘 이해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 20년간 질적 연구 방법은 영재교육에 도입된 이래 이제는 영재교육에서 연구 방법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으며, 미국 연구위원회(National Research Council)에서도 질적 연구 방법은 과학적 연구 방법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다(Coleman et al.,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에서의 질적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해 철학적인 면, 접근하는 면에 있어서 상당히 뒤쳐져 있으며, 양에 있어서도 양적 연구에 편중되어 있다(채동현 등, 2009; Cross et al., 2003).

권재술(1994)은 ‘학교 과학교육의 과제와 과학교육 연구의 방향’이라는 논문에서 과학교육 연구에서 질적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미국 과학교육학회지에서도 양적 연구보다는 질적 연구가 많고, 또 양적 연구를 학회에 게재하기 위해 제출하여도 수락되지 않는 비율이 높다는 분석 결과가 있다.”고 하였다.

Mendaglio(2003)은 양적 연구는 양적 연구만의 고유한 특징으로 영재학생들과 영재교육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영재교육 현장에 접근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반면, 질적 연구는 이러한 양적 연구가 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렇듯 질적 연구의 빈도와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영재교육에서의 질적 연구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질적 연구는 질적 연구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생각 변화(채동현 등, 2009), 학생과 교사의 과학 개념 관련 연구(채동현, 2003), 과학교육 과정 관련 연구(채동현과 김은영, 2002; McCormack,

1999), 과학 수업 방법 개선 관련 연구(Jorde, 1990; Van Zee et al., 2001), 과학 부진아 관련 연구(Barton, 2001), 과학 학습 이론 관련 연구(곽영순, 2002; Shepardson, 1996; Spradley, 1979; Ridgeway, 1988) 등이 있었다.

하지만 영재교육에서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한 예비 연구자들의 생각을 직접 다룬 논문은 거의 없었다. 질적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자가 질적 연구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는 수단적인 의미에서의 질적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 질적 연구에 대한 바른 이해는 질 높은 영재교육 연구를 위한 하나의 필요조건이므로 질적 연구에 대한 예비 연구자들의 이해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영재교육 분야에서의 질적 연구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넓히고, 더 나아가 영재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교육대학원에서 ‘질적 연구 수업을 받기 전, 질적 연구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질적 연구 수업을 받은 후, 질적 연구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질적 연구를 영재 교육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수업 중 함께 논의했던 논문들 중에서 가장 감명 깊은 논문은 무엇인가?’를 연구 문제로 선정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는 모두 10명으로 남자 2명, 여자 8명이다. 이들 모두 초등영재교육 석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원생이며, 초등학교 현직 교사들이다. 경력은 3년에서 15년 사이이다. 이들은 2009학년도 2학기 본 연구자들 중 한 연구자의 대학원 강의를 수강한 대학원생들로서, 연구를 위한 시발점에 놓여 있는 예비 연구자이므로 본 연구의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자는 먼저 질적 연구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이때 사용된 교재는 본 연구자들 중 한 사람이 공동저자로 저술한 「과학교육의 질적 접근」과 Creswell이 쓴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Creswell, 1998)이다. 「과학교육의 질적 접근」으로는 질적 연구에 대한 개략적인 이론을 소개하였으며,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은 질적 연구의 5가지 방법(전기, 현상학, 근거이론, 사례연구, 문화기술지)을 학습하였다. 방법을 학습한 뒤에는 5가지 방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문을 함께 읽고 토론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학원생들은 각자 질적 연구 논문을 찾아 발표하였다. 여기서 연구자는 대학원생들이 찾아 발표할 5가지 질적 연구 전통과 관련된 논문들을 영재교육으로 한정짓지 않고, 분야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찾도록 하였다. 강의가 모두 끝난 다음 연구자는 연구 문제와 관련된 설문지를 수강한 대학원생들에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연구자와 초등과학교육 박사 과정 1명, 초등과학교육 석사 과정 1명이 참여하였다. 자료 분석은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서로 의견을 내어 연구 문제에 따라 자료를 범주화하고 구조화하였다. 이때 연구자는 3명 모두 합의된 내용만을 연구 결과에 반영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에 반영된 내용을 다시 연구 대상자에게 점검하고 수정하도록 하여 연구의 진실성을 높였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1. 질적 연구 수업을 받기 전 인식

질적 연구 수업을 받기 전, 대학원생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적 연구에 대한 생각은 질적 연구 자체를 모르는 무개념형 그룹,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의 반대라고 보는 반대 개념형 그룹, 질적 연구에 대한 초보적 인식 그룹으로 나누었다.

다음은 무개념형으로 질적 연구라는 개념을 처음 접하게 된 경우이다.

내게 있어 첫 학기인 이번 수업에 들어가기 전, “영재교육연구방법론”이라는 생소한 교과목을 보며 어떤 수업일지 궁금하여 인터넷으로 검색하며 관련 내용을 읽어보며 이번 학기 수업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첫 수업에 소개된 내용은 검색 내용과는 전혀 관련 없는 “질적 연구”란 개념을 처음 듣게 되었다.(대학원생 9)

다음에 제시되는 사례들과 같이, 질적 연구에 대한 체계적 학습 경험이 없이 단지 질적 연구, 양적 연구라는 용어가 주는 직관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한 개

인 나름의 이해도 무개념형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연구, 논문 등의 용어와 어렵듯한 구성 및 체계는 그동안 많이 접해 왔기 때문에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질적, 양적 연구’란 용어는 처음 접해 보았기 때문에 그저 수학적 개념으로 질과 양을 생각했다.(대학원생 4)

먼저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에 대하여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또, 질적 논문을 직접 찾아 읽거나 접해본 일도 거의 없었다. 그냥 막연히 양적 연구는 객체를 많고 다양하게 표집하여 그 중에 공통된 문제점을 통하여 연구를 하고, 질적 연구는 적은 객체 수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다.(대학원생 5)

솔직히 연구의 종류,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정확한 의미 차를 몰랐다는 것이 맞다. 질적 연구라고 접해 봤던 것도 사례 연구 정도가 다였으니... .. 교육학 공부하면서 그저 연구 논문이 질적, 양적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었다.(대학원생 7)

반대 개념형은 질적 연구를 단순히 양적 연구와 대립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이분법적 인식에 의한 그룹이다. 즉, 많은 샘플을 대상으로 정형화된 연구 단계와 통계 처리 과정을 거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양적 연구의 각각의 요소를 질적 연구와 비교하여 상대적인 것으로 인식한다.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수치 조사를 통해 통계를 내는 것이 아닌 개개인의 설문이나 인터뷰에 의해 합의된 결론을 끌어내는 연구 방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대학원생 1)

질적 연구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연구자가 직접 개입하여 관찰이나 면접을 통해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양적 연구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생각했다.(대학원생 2)

양적인 연구가 어떤 양적인 측정을 가지고 논문 주제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거라면, 이와는 반대되는 의미로 질적 연구는 내용의 깊이나 심도 있는 연구 결과로 논문 주제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다.(대학원생 6)

마지막으로 질적 연구에 대한 학습 경험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기초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그룹이다.

질적 연구를 대표하는 말에는 ‘대상에 대한 심층적 이

해’, ‘참여자로서의 관찰’ 등이 있으며,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와는 다르게 인간미가 물씬 풍기는, 수량화·일반화된 이론의 생성이 목적이 아니라, 어느 소수 집단에 대한 이해가 목적이며 그 대상자를 이해하기 위해 오랜 시간에 걸쳐 그 집단 생활에 참여해 레포를 형성하고, 면담을 통해 그 대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종합하는 연구로 생각했다.(대학원 3)

양적 연구가 가설을 설정하고 변인 통제 속에서 그 가설의 타당성 여부를 생각한다면, 질적 연구는 가설을 설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구자에 따라서 똑같은 주제도 달라지고 주관적이라는 면이 양적 연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했다.(대학원 8)

제이구달이나 미드의 연구처럼 인간이 이론 복잡한 사회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제시한 대안이 질적 연구 방법이다.(대학원 10)

이와 같이 연구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의 질적 연구에 대한 인식은 질적 연구라는 용어를 처음 접한 대학원생으로부터 학부 강의를 통해 질적 연구의 특징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대학생까지 그 수준이 다양하였으나, 실제 질적 연구를 해 본 경험은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2. 질적 연구 수업을 받은 후 인식

질적 연구 수업을 받은 후 대학원생들은 질적 연구에 대한 인식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키워드로 ‘다양한 관점과 결론’, ‘인간적’, ‘심층적’, ‘형식화된 절차’, ‘교육현장에 적합’, ‘체계적’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양적 연구와는 달리 질적 연구가 가지는 고유한 특징 즉, 인간적인 측면, 심층성, 다양성에 주목한 경우이다.

질적 연구는 특정한 현상에 대하여 왜 개개인이 다른 생각과 다른 관념을 지니고 왜 그러한 행동을 하며 그러한 방식으로 대처하는지에 대하여 인간의 내적인 면을 들여다보면서 연구를 시작하는 것으로 매우 인간적이고 심층적이며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없는 무한한 연구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대학원생 1)

인간의 행동과 생각은 어떤 인위적인 통제와 처방을 통해 예측하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또한 한 사람의 행동을 여러 사람이 관찰을 한 후 이야기를 해 보면 사람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즉,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양적 연구가 아닌 질적 연구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대학원생 2)

(양적 연구는) 인간으로서 더 알고 싶은 것,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공감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하지만 질적 연구는 처음부터 인간 친화적이다. 인간을 위한, 인간과 함께 하는 연구로서의 가치를 느끼게 한다. 때문에 연구 주제에 따른 적합한 연구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대학원생 4).

이와 같이 질적 연구가 가지는 내재적 본질, 가치면에 주목하는 대신 하나의 연구 방법, 기법, 체계 등 연구로서의 체계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이다. 즉, 수업 전에는 양적 연구가 체계성, 논리성 등에 있어서 질적 연구보다 우월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가 수업 후 질적 연구에도 신뢰성,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이다.

질적 연구는 일정한 형식 없이 대상자와 함께 레포를 형성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그 대상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질적 연구에도 형식이 있었다. 현상 연구에서도 결과 도출을 위한 형식화된 절차가 있었으며, 근거 이론도 마찬가지였다. 대부분의 질적 연구에 필요한 코딩도 형식화된 절차가 있었다.(대학원생 3).

일단 질적 연구에 대해 알고 있었던 잘못된 지식이나 선입견이 사라지게 되었다. 질적 연구에서 결코 신뢰도나 타당도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대학원생 5).

질적 연구를 많이 접할 수 없는 이유가 양적 연구에 비해 체계도 없고 정확성도 떨어져서 많은 이들이 그 연구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개념을 코딩하는 수업을 받으면서 질적 연구가 체계도 있고 다양한 변인들을 수용하며 복잡한 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알았다.(대학원생 10)

수업 후 질적 연구에 대한 인식 변화로 교육 현장에서 질적 연구의 유용성에 대해 깨달을 것이다. 질적 연구는 인간적이며, 있는 현상을 그대로 심층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 적합하다는 인식이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교육에 관련된 학생들의 가치와 심리를 연구하고자 할 때, 질적 연구 방법이 꼭 필요할 것이며, 적절한 연구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대학원생 5)

교육 현장에서 특히, 소수의 학생을 지도하는 영재교사로서 양적 연구보다는 질적 연구를 해야 하고, 이로써 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대학원생 7)

나는 학생의 인지와 행동 등을 고려하여 소위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이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은 양적 연구보다는 질적 연구로 할 때,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대학원생 9)

이외에도 질적 연구는 그 특성상 시간과 노력이 많이 수반되므로 자료 수집, 분석 등 일련의 연구수행이 어려우며 또한 연구자의 질적 연구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도 요구된다고 보았다.

질적 연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과 그 분야에 대해 연구자 스스로 해박한 지식과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학원생 2)

물론 훨씬 더 많은 시간과 힘이 (양적 연구 보다) 훨씬 더 든다는 단점이 있다.(대학원생 4)

질적 연구는 정말 어려운 분야이고 더구나 근거이론은 질적 연구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과 연구자의 끈기를 요하는 연구이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대학원생 8)

3. 영재 수업에 질적 연구의 적용 방안

질적 연구를 영재교육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대학원생들은 인지적 측면, 심리적 측면, 창의성 계발 측면 등 크게 세 가지 나눠 답하였다.

첫째, 다양한 영재의 인지적 특성에 맞는 개별화 교육은 비교적 적은 수를 대상으로 심층적으로 이루어지는 질적 연구 결과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특정 수업에 대하여 영재아 각각은 어떠한 방식으로 사고를 확장하고 개념을 성립해 가는 것인지 질적 연구 방식을 통하여 개개인의 사고 방법이나 사고 단계에 알맞은 방향을 제시하거나 자극을 주는 등 고도의 멘토링 방향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대학원생 1)

영재들은 그야말로 개개인에게 차별적인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 등에 대해서 생애사, 현상학적 접근, 근거 이론, 사례 연구 등 질적 연구를 통해 그 본질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면 수업 구성에도 많은 도

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대학원생 4)

영재는 다양하다. 영재를 수학영재, 과학영재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이런 영재의 분류를 좀 더 세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수학을 잘하는 영재 중에서도 계산은 잘못하는데 도형을 구상하는 건 잘하는 학생이 있는 것처럼 많은 유형의 영재가 존재한다. 이런 영재를 교육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다면 학생마다 영재 특성을 파악하여 보다 심도 있고 적합한 교육방법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대학원생 10)

둘째로는 정의적, 심리적 측면에서 질적 연구는 영재교육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즉, 영재아들도 교실에서 영재아들만의 심리적 갈등,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영재아와 그 주변 환경과의 심리적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질적 연구는 영재아들의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영재 학급 등 영재들만을 위한 교육이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 보통은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들과 함께 수업을 받고 개인적으로 방과 후에 영재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많다. 일반 아동들과 함께 생활하는 학교에서 대인 관계에서의 어려움 등 표면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영재 아동이 일반 아동들과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해 배울 때 심리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등 영재 아동이 일반 아동들과 생활하며 느끼는 내면적인 어려움,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영재 아동이 사용하는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대학원생 3)

영재교육에서 영재학생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할 때, 영재학생의 학부모, 가정 환경, 학교 환경 등의 주변 요소와 또 영재 학생들의 주변 인물들의 심리적 상태 및 노력을 연구하는데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재학생을 가르치는 교육기관 및 담당 교사들에 대한 연구를 할 때에도 질적 연구가 적합할 것이다.(대학원생 5)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영재아들이 일반 학급 속에서 겪고 있을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대부분 그렇듯 중간 수준의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춰 수업을 하고, 우수이나 영재아를 위한 심화 문제와 부진아를 위한 보충지도를 계획한다. 하지만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교사는 영재나 우수아는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부진

아에게 더욱 신경 쓰게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영재아들의 마음속 갈등이나 생각 등을 심층 면접이나 글쓰기 등을 활용해 이해할 수 있다면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즐거워 할 수 있는 수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대학원생 7)

창의성은 지적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겠으나, 영재교육에서 창의성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영재성을 판별하는 중요한 요소이자 대상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창의성도 역시 지적인 면과 마찬가지로 학생에 따라 수준, 분야가 큰 차이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학생의 특성과 창의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데 질적 연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영재교육 분야에서 수치가 연연하고 결론을 도출해 일반화시키는 양적 연구보다는 각각의 다양성과 가변성을 수용하고 심층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질적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가령 어떤 특정한 몇몇 아이들을 대상으로 관찰을 통해 그들의 어릴 적 행동에서 창의적인 행동을 찾아내어 보고, 그 아이들의 부모와 인터뷰를 해보고, 아이들의 활동 결과물을 조사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어린 시절의 영재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또 어떤 방법이나 놀이 활동을 통해서 더욱 창의성이 길러지고 있는지를 연구해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질적 연구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생각이다. 이렇듯 영재교육은 인간의 가변성을 무시하고 특수성을 무시한 양적 연구보다는 인간의 가변성에 가치를 두고 보다 심도 있고 깊이 있게 소수의 대상을 연구할 수 있는 활발한 질적 연구 활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대학원생 6)

질적 연구는 정해진 인과 관계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의한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을 시도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영재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 전반에서 부각되는 창의성과 유사한 점이 많다. 그래서 실제 수업과 관련해서는 창의성 중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등 이를 신장할 방안으로 질적 연구의 주제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대학원생 9)

이밖에 대학원생 2는 영재성에 대한 정의, 관점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이를 바탕으로 영재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질적 연구가 유용함을 강조하였고, 대학원생 8은 서번트(gifted servant) 즉, 바보영재에 대한 개인적 호기심을 나타내며, 서번트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바보영

재에 대한 질적 연구는 이들을 위한 영재교육에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4. 감명 깊었던 질적 연구 논문

수업 과정에서 읽었던 질적 연구 논문 중에서 기억에 남는 논문을 소개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다. 논문 주제와 감명 깊었던 이유가 다양하였으며 그 논문의 연구 방법 종류는 생애사 논문, 현상학적 논문, 근거 이론을 적용한 논문, 사례 연구 논문 등이었다.

대학원생 1은 Vonnie Lee라는 한 개인을 오랜 시간을 두고 추적하여 개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특정 행위에 담긴 의미를 파악해 가는 생애사 연구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질적 연구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었다.

Vonnie Lee와 버스를 타고-생애사 탐구와 은유: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연구 대상자를 쫓아 연구한 점이 경이로움은 두말할 나위 없으나, 그것보다 더욱 감명 깊었던 것은 생애사 연구를 통하여 연구 대상자(Vonnie Lee)에게 특정 행동(버스를 타는 행위)이 갖는 의미를 통찰해 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연구 상황 밖에서 볼 때에는 당연이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개인이기 때문에, 특정한 집착적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생애사 연구를 통해서 그러한 특정 집착적 행위가 연구 대상자 자신에게 있어서는 수준 높은 세계를 향유하기 위한 확장적인 하나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아내었을 때의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만큼 연구 대상자를 세밀히 관찰하지 않고서는 알아낼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함으로써 질적 연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연구였다.(대학원생 1)

대학원생 2, 대학원생 8, 대학원생 10은 근거 이론을 사용한 논문에 가장 감명을 받았다고 하였다. 인과 조건들이 어떻게 중심현상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 분석 과정과 결론 도출 과정에 이해를 더해 가며, 이들 논문이 도출한 발견에도 큰 공감을 하였으며, 문제를 보는 시각이 넓어진 것으로 보였다.

일반 위탁 가정 아동의 적응에 대한 연구: 이 연구는 위탁가정 아동의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에 대해 살펴보고 적응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지지 서비스 전략을 수립하는데 근거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행해졌다. 이 논문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요즘 아이들을 보면 불안정한 가정 환경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리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부모의 잘못된

양육 방식이나 가정의 불화는 아이들의 정서 발달이나 사회성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논문을 읽으면서 우리 학교 아이들은 어떠할지 생각을 해봤다. 아마도 어떤 시설에 맡겨져 있지는 않지만 부모의 무관심이나 잘못된 양육 방식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도 많이 있지만, 그것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학교 전체 아이들에게는 도움을 주긴 어렵겠지만, 나와 만나는 아이들에게 만이라도 관심을 가져서 어떠한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대학원생 2)

여성의 입덧 경험에 대한 근거 이론적 접근: 여성으로서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여성의 입덧을 하나의 논문 주제로 삼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는 근거 이론이 와 닿았다. 입덧의 인과적 상황으로 냄새 자극, 공복을 들었으며 이러한 인과적 상황으로 인해 신체 기능이 약화되고, 심리적 불안정을 초래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입덧을 발생시키는 맥락으로 환경의 변화, 과로가 파악되었으며, 가족 지지가 입덧을 안정시키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알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의 이론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 논문을 통해 알았기에 이 논문이 가장 감명 깊었다.(대학원생 8)

초등학생이 일제 시험 기간 동안에 겪은 경험의 실체: 기존의 질적 연구 방법보다 형식이 자유롭게 느껴지고 읽는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였다. 현상에 대한 분석이 간결하면서도 독자가 생각해 볼 여지를 주고 있다.(대학원생 10)

대학원생 4, 대학원생 7은 같은 논문을 선택하였는데, 연구자의 전체나 선입견에 의해 연구 관찰 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제시하면서 영재교육 경험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기 위하여 현상학적으로 접근한 논문이었다.

초등 영재교육 경험의 의미 탐색: 영재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아동의 능력뿐만 아니라 능력이 발현될 수 있는 환경, 특히 교사에 대한 태도 및 교사와의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교육적·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는 영재 학생과 학부모 상담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앞으로 영재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영재의 관점에서 어떠한 현상에 부여하는 해석과 의미를 명료화함으로써 그들 내면에 감추어진 관념, 느낌, 동기, 신념 등을 그들이 처한 맥락 안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이 현상학적 접근으로서의 질적 연구가 가장 마음에 와 닿았다.(대학원생 4)

초등 영재교육 경험의 의미 탐색: 요즘 여기 저기 영재라는 제목이 붙은 교육원에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학생이 결코 다 영재라는 생각은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이나 부모들이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우수한 때때나 교사와의 상호작용으로 지적 자극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영재교육 참여에 기쁨과 자신감을 느끼는 반면에 영재라 불리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정서도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 영재아들과 부모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대학원생 7)

대학원생 5, 대학원생 6, 대학원생 9는 영재아 개인 또는 영재교육계가 당면하는 경험, 상황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밝혀내는 사례 연구법에 의한 질적 연구 논문을 감명 받은 것으로 선택하였다.

2006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실태 및 양성에 관한 질적 연구: 영재교육에 필요한 조건을 생각해 보면 학생, 교사, 시설 등이 필요할 것이다. 학생이나 시설은 정책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큰 무리 없이 준비가 되고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영재교육 담당 교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먼저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연수나 대학원 과정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영재교육을 담당하는데 있어서 연수 과정을 보다 세분화하고 전문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대학원생 5)

자신의 두 딸인 영재아이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 논문을 쓴 자료가 너무 인상적이었고 많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미있게 읽어 내려갔었던 적이 있다. 두 아이가 이미 영재아지로 판명이 된 상태였고, 그런 두 딸을 몇 년에 걸쳐 관찰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인터뷰하면서 영재아들에게 있어서 어린 시절에 놀이가 얼마나 중요하고,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놀이나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영재아이들에게 보여지는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모습들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사례 연구를 한 논문이었다. 이 논문을 읽으면서 질적 연구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 활동도 가능한 것임을 느낄 수 있었고, 질적 연구에 대해 막연하게 어렵게만 느끼고 있었는데, 오히려 질적 연구가 너무 재미있고 주변에서 질적 연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이나 주제가 정말 무한하다는 걸 느끼게 해준 논문이었다.(대학원생 6)

학교와 영재교육원에서의 초등 과학 교육 비교: 수업 및

자료 준비를 통해 재미있는 주제와 앞으로 연구함에 있어 도움이 될 만한 체계적인 논문들도 많았지만, 이 논문은 내가 처음으로 선택하고 발표 준비를 했던 것 때문인지 머릿속에 오래도록 기억이 남는다. 또한 학교 교사이지만 앞으로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사로 참여할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와 영재교육원에서 영재학생들이 느끼는 생각의 차이를 알 수 있어서 좋았다.(대학원생 9)

IV. 결 론

본 연구의 주제는 질적 연구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인식 변화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영재교육에서 질적 연구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전문가의 체계적인 질적 연구 강의가 필요하다. 단순히 시험공부나 임용고시에서 다루는 질적 연구 수준으로는 실제적인 질적 연구에 대해서 배웠다고 할 수 없다. 과학교육에서의 질적 연구의 위치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체계적인 질적 연구 강의를 필요하겠다. 체계적인 강의가 바탕이 된다면 이론과 현장이 연결되는 초석이 될 것이다.

둘째, 질적 연구 강의는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실제로 자신과 관련된 연구 주제를 찾아내는 수준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질적 연구가 추구해야 하는 목적은 영재교육의 질 향상과 관련이 되어 있다. 질적 연구 자체에 대한 지식 전수를 넘어서 학교 현장에서의 실천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자신과 관련된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질적 연구를 통해 알아보는 일이 가능한 수준까지 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질적 연구에 대한 강의는 이론보다는 실제 논문에 제시된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영재교육과 관련된 질적 연구 논문을 읽고 토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대학원생들은 기존에 잘 알지 못했던 질적 연구를 통해 영재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화하고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기쁨을 느꼈으며, 이를 학교 현장에 실행해 옮기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넷째, 국내 영재교육의 역사가 짧고 또한 영재교육에 대한 국내 연구가 아직 미약한 현실에서 우리나라 영재교육이 학교 현장에 정착하는 과정에 아

직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로 영재교육 현장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 메커니즘이 어떠한지 규명하는 것이 영재교육 문제 해결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바탕임을 안다면 영재교육에서의 활발한 질적 연구는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영순(2002). 예비교사들을 통해 알아본 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효과 및 과제: 학생들의 변치 않는 신념들. 한국지구과학회지, 23(4), 309-323.
- 권재술(1994). 학교 과학교육의 과제와 과학교육 연구의 방향. 학교과학교육의 혁신과 실천방안 학술심포지움, 한국교원대학교, 89-118.
- 김찬중(1999). 초등 과학교육의 질적 연구.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 하계학술 주제발표, 1-10.
- 채동현(2003). 초등예비교사들의 계절변화 원인에 대한 질적 연구. 초등과학교육, 22(1), 109-220.
- 채동현, 김은영(2002). 과학관련 개발활동 부서 운영에 대한 질적 연구. 초등과학교육, 21(1), 25-42.
- 채동현, 정성안, 김혜자, 오준영(2009). 질적 연구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생각 변화. 국제영재교육학회지, 3(2), 143-157.
- Barton, A. C. (2001). Science education in urban settings: Seeking new ways of praxis through critical ethnography.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38(8), 899-917.
- Coleman, L. J., Guo, A. & Dabbs, C. S. (2010). The state of qualitative research in gifted education as published in American journals. *Gifted Child Quarterly*, 51(1), 51-63.
- Creswell, J. W. (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SAGE Publications.
- Cross, T. L., Stewart, R. A. & Coleman, L. J. (2003). Phenomenology and its implications for gifted studies research: Investigating the Lebenswelt of academically gifted students attending an elementary magnet school.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26(3), 201-220.
- Golafshani, N. (2003). Understanding reliability and validity in qualitative research. *The Qualitative Report*, 8(4), 597-607.
- Jorde, D. (1990). The primary science project in Norway: Action research and curriculum development,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63rd, Atlanta, GA, April 8-11(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23 083).
- McCormack, A. J. (1999). *Trends and issues in science cu-*

- riculum(A Practical Guide for K-12 Science Curriculum)*, Kraus International Publications.
- Mendaglio, S. (2003). Qualitative case study in gifted education.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26(3), 163-183.
- Peine, M. E. (2003). Doing grounded theory research with gifted students.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26(3), 184-200.
- Ridgeway, D. (1988). Misconceptions and the qualitative method. *The Science Teacher*, 55(6), 68-71.
- Shepardson, D. P. (1999). Learning science in a first grade science activity: A Vygotskian perspective.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36, 621-638.
- Spadley, J. (1979). *The ethnographic interview*.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Van Zee, E. H., Iwasyk, M., Kurose, A., Simpson, D. & Wild, J. (2001). Student and teacher questioning during conversations about science.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38(2), 159-190.